



## 자조금사업 급물살, 국산녹용 홍보광고 방영 예정

- 임원연수회시 자조금 거출 지속 추진키로 결의 -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조만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본회 임원·지회장·사무장 등은 지난 10월20일 전북 부안에서 개최된 임원연수회에서 올해 계획된 자조금 사업을 실현 가능한 목표까지 진행키로 결의하고 자조금 거출도 지속 추진키로 결정했다.

올해 양록산업에 배정된 자조활동자금은 총 2억원.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농가 경영 악화로 자조금 거출 실적이 미비, 지난 8월20일 기준으로 고작 380

지역 양록인들을 독려하는 한편 거출된 자조금은 즉각 라디오광고 및 여성 월간지 등에 투여, 홍보를 실시하자"고 결의했다.

특히 자조금을 납부한 지역과 납부치 않은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록인 화합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조금의 사업 혜택은 모든 양록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자조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납부를 지속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양록자조금은 향후 거출 예정 금액을 포함, 농가 거출금이 총 3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정부 지원금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천만원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협회에서는 농림부에 총 6천만원에 대한 자조금 사업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빠른 시간내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방송대행사와 계약을 체결, 전국 단위의 라디오 방송을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부터는 1~2개의 방송사를 통해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멘트를 라디오를 통해 청취할 수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조금 거출 현황에 따라 여성지 등 월간지를 통해 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농림부에서 양록인에게 배정한 자조금이 다시 국고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못박고 "최대한의 자조금을 거출, 소비촉진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국 임원이 조금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농림부에서 배정한 자조금은 양록 농가에서 거출한 금액만큼만 지원된다. **한국양록**



만원의 자조금이 거출된 바 있다.

이후 9월16일 대전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임원연석회의를 통해 자조금 거출을 결의한 전국 지회장 사무장들은 지속적인 거출을 실시, 연수회 전까지 약 1천3백여 만원을 거출했으며 연수회시 거출된 자조금을 포함, 현재까지 총 2천5백여만원의 자조금이 거출됐다.

10월20일 실시된 임원연수회 자조금 토론회를 통해 전국 지회장들은 "침체된 국산 녹용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현재까지 거출 실적이 미비한 지회는 각